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0-18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0-18
2020 년 10 월 18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19312340](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19312340)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10 월 18 일

차례

1. [민주노총이여노동의큰희망이여노동자주인되는날까지힘 차게투쟁하여라]	3
2. [비대면해고에맞선대면투쟁]	4
3. [반성해야할사람은그녀가아니라우리다]	5
4. [태국국왕라마 10 세는사랑을구걸하지말라]	6

4. [태국국왕라마 10 세는사랑을구걸하지말라]

태국정부의시위금지령과대중교통폐쇄에도굴하지않은수많은태국 시민들이연일반정부시위를이어나가고있다. 2014 년쿠데타로권력을 잡은쁘라윳찬오차총리는사퇴할의사가없다는발언으로시위대의견과정면충돌하고있다. 시위대에의하면쁘라윳총리는권력유지를위해선거를조작한혐의를받고있다.

국왕라마 10 세, 마하와치랄롱꼰역시이를심각한상황이라고인식하고있는지왕실반대에서지지로전향한사람들과대화하는모습을 3 분가량방송으로내보냈다. ' 신성불가침' 의태국국왕의육성이이렇게방영되는것은이례적이라고하니얼마나현상황이위협적으로느껴지는지를보여준일레라고하겠다. 그는현시위에대해언급하지는않았으나" 지금이나라에는나라를사랑하고왕실을사랑하는사람들이필요하다" 는의견을피력했다.

사랑을갈구해야하는신성불가침의존재란얼마나치량한가. 국왕이진정살아있는부처이자신이라면그가보살핀다고하는이들의의견을이렇게오랫동안고생시키며길거리에세워둘수는없는노릇이다. 물대포를뿌려대며공격할수없는노릇이다. 상대를죽이려고하면서어떻게그들에게사랑을달라고말할수있는가.

세계에서가장부유한왕가가태국왕가이며그재산이 46 조원에달한다는등의이야기는굳이길게덧붙이지않겠다. 관광산업이큰비중을차지하는태국경제는코로나 19 로무너져가고, 많은사람들이일자리를잃었다. 또한태국은입헌군주제를표방하고있음에도와치랄롱꼰은권력을강화하고정치에개입하려는여러시도를행하고있다.쁘라윳총리마저왕실의꼭두각시에불과하다는의혹이나오는중이니이는더말할필요가없을것이다.

사랑받는왕으로명예롭게남고싶은가? 그렇다면쁘라윳짜오차총리와함께국왕의자리에서내려오라. 사랑하는국민들과함께같은자리에서같은노력들을다하라. 그렇게하면구걸하지않아도, 저절로태국국민들은당신을한인간으로사랑해줄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1. [민주노총이여노동의큰희망이여노동자주인되는날까지힘차게투쟁하여라]

선거철이되기는되었나보다. 올연말있을민주노총직선임원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산하공공기관노조”들이토론회를열고, “민주노총이시대착오적인투쟁방식에서벗어나사회적대화를병행해야한다”고주장했다.

민주노총의소위“사회적대화”참석및합의여부는김명환씨체제아래에서꾸준히뜨거운감자였고, 이름만바꾼형태의노사정위참석, 합의안의결여부로대의원대회만두번을진행했다. 그리고그모든대의원대회에서는“사회적대화”가모두부결되었다. 그리고김명환씨는조합원이직접선출하여부여한위원장직위를값싸게도내던지고야인으로돌아가셨다.

토론회에참가한패널들께서는현비상대책위원회체제의“강경노선”을비판한다. 그렇다면규약상민주노총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대의원대회가이정세에서, 지금의정부의태도아래에서“사회적대화”를부결했는데, 민주노총의집행부가대의원대회의명확한의사표명을부인하고또다시“대화”에나서야한다는것인가? 패널들께서원하시는것이민주적노동조합이맞기는한가?

물론, 승리하는그때까지결코타협하지않고투쟁, 투쟁, 또투쟁해야한다는“투쟁무새”노릇을하고싶은생각은없다. 노동조합은언제나다음의투쟁을준비해야하고, 그러기위해타협과교섭과대화하는것역시조직의중대한책무이기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운동은필자보다더오래해오신선배들께이정도의가장기본적인사실을다시금인지시켜드려야할것이라고는생각하지못했는데, 투쟁이없이는유의미한교섭은가능하지않다. 투쟁이있어야교섭도열리고, 투쟁이있어야합의도만들어진다. “사회적대화”를하나의“교섭전술”로사용하고싶다면, 사회적투쟁을조직해야한다. 대정부교섭을하고싶다면, 대정부파업을조직해야한다.

글을쓰다보니, 노동조합운동의선배들께너무나도무례하고원색적인비난을가한것같다. 이선배님들이이토록기본적인사실을모르실리가없는데말이다. 오랜투쟁에치치고, 끝이보이지않는투쟁의길이라는것은괴로운것이기에이렇게될수도있겠다싶다. 그리고그렇다면, 각자의현장에서조용히, 투쟁이빠진대화와교섭을만드시면되지않는다.

우리는아직지치지않았고충분히괴롭지않기에, 더욱더힘찬투쟁을, 이에기반한합의를조직하겠다.

“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들은결코정치적투쟁에반대하지않는다. 하지만, 그들은이투쟁역시직접행동의형태로, 노동계급이통제할수있고, 가장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경제적힘의수단을통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 < 아나르코생디칼리즘 >, 루돌프로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

2. [비대면해고에맞선대면투쟁]

2020 년 10 월 18 일기준열흘전 10 월 8 일, 한동대측의일방적인비대면해고에맞서청소노동자들이투쟁을전개한지어언 100 일이지났다. 한동대측은노동조합을했다고, 청소노동자들의처우개선에대한협상에선노동조합의자세가마음이들지않는다고조합원들에대한대대적인정리해고를실시했다. 그것도무려현수막하나를내걸고말이다.

투쟁 100 일차의한동대미화분회노동자들은자신들과함께마찬가지로정리해고를당해투쟁중에있던울산중앙병원민들레분회노동자들과함께투쟁했다. 수십명의노동자들이자신의사업장이아님에도불구하고같은‘정리해고’라는공통점을가진노동자들과함께연대하고투쟁했다. 비록한동대학교와울산중앙병원의거리와구성원들의사정은다를지모르지만, 자본가의착취와국가의무관심에맞서함께하고투쟁할수있음을모두에게보여주었다.

어떠한노동조합의조합원이라고해서반드시승고한가치만을가진것은아니다. 한동대미화분회청소노동자들은박카스한상자뿐인별것아닌선물에도떨듯이기빠하면서함께연대하러와준사람을환영했다. 그들은한사람의어머니, 한사람의친구였다. 그러한사람들이자신의일자리, 자신의생존, 자신의가족을위해서노동조합을결성하고투쟁했을뿐이다. 자신의이익을위해싸웠고협상했을뿐이다. 국가와자본은이를내팽개치고해고하고억압했으며, 쫓아냈다. 국가는노동자들의호소를무시하고자본에부역했으며, 자본은이에날개를달아마음껏노동자들을때려부수기시작했다.

국가와자본은노동자들의생존을위한그모든움직임을‘비효율’과‘합법’이라는이름으로핍박하고찍어눌렀다. 그들이그어떤움직임을보이더라도그것이국가와자본에위협이되거나피해가되는것같이보인다면즉각적으로‘엄벌’을한다거나‘형사처분’을하겠다는등의협박과압박을내비쳤다. 이로서국가와자본은노동자, 인민에게는그저해를끼치는존재임이입증된것이다.

노동자와인민은국가와자본에맞서끊임없는투쟁을통해궁극적인해방을이루어내야한다. 또한다른사람과, 같은처지에처한사람들과의연대를통해. 그리고내옆에있는가장힘든사람과함께연대함으로써사회혁명으로향하는길에한걸음내딛어야한다. 한동대미화분회의투쟁이승리

로끝날때까지아나키스트연대역시지속적인관심과연대의의지를더한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769>

3. [반성해야할사람은그녀가아니라우리다]

지난 16 일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20 만원의판매금액으로자신의젖먹이아이를입양보내겠다는글이올라왔고, 이에대해경찰이수사한결과아빠없이혼자서아이를키우던미혼모가입양과정에서어려움을겪자감정적으로올랐다고진술하였다.

해당미혼모는양육을위한경제적여건이안되는상황에서아기아빠없이혼자서이를부담해야할상황이었고, 아이를입양보내기위한절차과정에서도어려움을겪은것으로드러났다.

본사건을통해한국사회에현존하는큰두가지의부조리를알수있다. 첫번째는양육의사회화가여전히부재하다는것이다. 우리사회는현세대의부담을덜도록다음세대를만들어갈기본적인의무를여전히방기하고있다. 둘째는여성에대한차별이다. 첫째와같이사회보장이부재하고양육의부담을개인들에게떠넘기는상황에서신체적특성상필연적으로여성에게더가혹하게가해질부담에대해안전장치는사실상부재하다.

어떤이들은여건이되지않는상황에서아이를가지는일을개인의문제로몰아간다. 하지만 21 세기를살아가는우리가가난한자는남지도말고꾸리지도말라는 19 세기멜서스식적자생존사회를지향해야하는가? 양육은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적인문제다. 진보하는사회로서양육의사회화는빈곤을줄이고, 복지를증진하며어려운이들의부담을덜기위한으로의필요성은물론양육의부담을본인에게한정짓는것이역사적으로여성을가정에얹매이게하여사회진출을심각하게저해하였음을생각할때, 이차별을종식하기위해서라도양육의사회화는우리의의무이다.

이중누구도이번일에대해비난할권리가없다. 우리가지금해야할것은우리사회에대한비판적반성과양육의사회화담론을논하는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n>